

자명종

특별기고 |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형성

핫이슈 I | 학교조직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

핫이슈 II | 지방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재개정요구

■ 일시 : 2017년 5월 12일(금) 16시 ■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응비관

현장중심 노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꿈꾸지 않으면...

꿈 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CONTENTS



2 권두시

꿈꾸지 않으면... / 양희창

4 인사말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김종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이연월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 오재형

7 문화소식

영화

8 복무조례 개정

9 성명자료

10 노조소식

체육대회 ● 제6대출범식 개최 ● 노사합동연수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간담회 ● 조합원 노동교육실시

13 조합원 동아리소개

산악회 ● 테니스 ● 백년대계

14 특별기고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김종기

16 우리는 한마음

연맹공동추진사항

19 우리도 예술가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박기서

20 조합원 칼럼

현관앞에 놓인 선물 / 김용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 박기서

22 함께해요

날말맞추기

23 건강

위장에 좋은차 추천 5가지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기

KIM JONGGI

현장 중심, 조합원 중심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김종기입니다

그동안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던 경북교육노조의 소식지 자명종을 분기별로 발행하는 홍보책자로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출간 인사말은 지난 5월12일 개최되었던 경북교육청노조 제6대 출범식에서 말씀올린 출범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경북교육청노조 제6대 출범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강영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빈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오늘 출범식을 함께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본청을 비롯한 23개시군 지부 대의원과 조합원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3년 8년간의 중앙노조 활동을 마치고 경북교육청으로 내려온지 벌써 4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폐쇄적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공직사회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참봉사자로 거듭나고자 청도교육청 직장협의회, 경북교육청노조, 전국시도교육청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총연맹에서 활동하면서 중요한 공직사회 변화의 중심에서 공무원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국민에게 참봉사 실천보다는 공무원 제 밥그릇만 챙기는 노동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 받는 노조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흔히들 영남을 보수의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계는 더욱더 보수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2013년 이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의 변화는 진보 교육감님이 계신 그 어느 곳 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노사 관계에서만큼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의견을 들어주신 이영우 교육감님이 계셨기에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지난번 복무조례개정을 통하여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면서도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정규직이라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3일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직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교육청노조는 격변하는 공직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라는 우산 밑에서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외부의 힘을 빌리거나 권리만 주장하는 조합원까지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묵묵히 일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에게는 조합의 전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조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중앙노조위원장님들이 왔으니 정면현수막에 있는 학교행정실 법제화, 성과연봉제, 행정실 특수업무 수당 등 중앙노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북교육노조 6대 출범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이 연 월

LEEYEONWOL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입니다.
경북교육노조 제6대 출범 축하와 함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을 다시 뵈 수 있어 참으로 반가운 마음입니다.

경북교육노조는 공노총 산하 전국 제일의 단위노조로 언제나 투쟁의 선봉에 서았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께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특히 공노총 공동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종기 위원장님께서서는 공무원 직종개편, 대정부 단체교섭, 연금 투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때마다 현장의 중심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북교육노조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5월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노총은 국민이자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에 공공성 강화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노총은 '11대 과제'를 선정하여 '개혁을 통한 건전한 공직사회 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교육청노조 동지들의 숙원인 '학교조직 법제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공노총이 보낸 정책질의서를 통해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조직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또 지난 3·18 출정식에 참석하여 공노총의 11대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의 '열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경북교육노조 동지 여러분들이 단결된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노총은 조합원 동지들의 '희망'을 한 곳에 모아 11대 과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북교육노조 6대 출범을 축하드리며, 경북교육노조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OH JAEHYEONG

경북교육노조 6대 출범을 축하하며, 민주정부의 소통과 상생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6대가 지난 5월 12일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역임하셨고, 풍부한 경험과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지난 2015년에 공무원 노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초·중·등 교육법 개정은 아직도 많은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바지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정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대로 우리 공무원의 노동여건은 점차 악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 노동조합도 문재인 대통령께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지난 3월18일 공노총 출범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노총의 11대과제를 수용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1대 과제 중 우리 공무원들의 목을 옥죄고 있는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점사업인 학교조직법제화 약속 하셨습니다.

교육청노조는 민주정부와 소통과 상생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투쟁의 현장에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단결된 힘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 속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열 Anarchist from Colony, 2017

감독 : 이준익

출연 : 이제훈, 최희서, 김인우

개봉일 : 2017.06.28

영화소개 : **"조선인에게는 영웅, 우리한테 원수로 적당한 놈을 찾아."**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퍼진 괴소문으로 6천여 명의 무고한 조선인이 학살된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심을 돌릴 화제거리가 필요했던 일본내각은 '불령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하던 조선 청년 '박열'을 대역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다.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돼줘야지"

일본의 계락을 눈치챈 '박열'은 동지이자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일본 황태자 폭탄 암살 계획을 자백하고, 사형까지 무릅쓴 역사적인 재판을 시작하는데....



옥자 Okja, 2017

감독 : 봉준호

출연 :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렌할, 폴 다노, 안서현

개봉일 : 2017.06.29

영화소개 : **"우리 집으로 갈거야, 반드시 함께"**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 (안서현)에게 옥자는 10년 간 함께 자란 돌도 없는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나타나 갑자기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가고, 할아버지(변희봉)의 만류에도 미자는 무작정 옥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선다.

극비리에 옥자를 활용한 '슈퍼태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CEO '루시 미란도' (틸다 스윈튼), 옥자를 이용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조니' (제이크 질렌할), 옥자를 암세워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려는 비밀 동물 보호 단체 ALF까지, 각자의 이권을 둘러싸고 옥자를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세상에 맞서, 옥자를 구출하려는 미자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져 간다.



스파이더맨:홈커밍 Spider-Man: Homecoming, 2017

감독 : 존 왓츠

출연 : 톰 홀랜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이클 키튼

개봉일 : 2017.07.05

영화소개 : **마블 히어로의 세대교체!
"어벤저스가 되려면 시험 같은 거 봐요?"**

'시빌 워' 당시 '토니 스타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발탁되어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톰 홀랜드).

그에게 새로운 수트를 선물한 '토니 스타크'는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며 조언한다. 하지만 허세와 정의감으로 뚝뚝 뚫힌 '피터 파커'는 세상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 '벌쳐' (마이클 키튼)에 맞서려 하는데...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복무조례 주요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제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u>교원의</u> 근무시간 및 <u>학교의 여건</u> 을 고려하여 학교이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 <u>학교의 여건</u> ————— ————— <u>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u> —————														
· 제18조 (특별휴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사망</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2</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2</td> </tr> <tr> <td><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td> <td>1</td> </tr> <tr> <td>〈신 설〉</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1	〈신 설〉	
구분	대 상	일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1															
	〈신 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u>여성공무원</u> 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u>공무원</u> 은—————														
·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u>장기재직휴가 15일 2회</u> · (신설) · (신설)			<u>2회 이상 (1회 10일 미만 사용)</u> · 자녀 군 입영 당일 입영동행휴가 1일 ·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3일 이내 학습휴가 부여														

- 주요 추진 경과 -

2016.09.21.	3/4분기 노사협의회 복무조례안 개정 요구(수용)
11.03.	입법예고 완료
12.14.	4/4 분기 노사협의회: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 신설요구 (수정수용)
2017.01.13.	복무조례 개정 관련 총무과 협의 (학습휴가 3일로 지정)
01.19.~02.08.	입법예고 완료
02.23.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관 조례안 제출
02.24.~03.07.	노조 집행부 및 지부임원이 도의원 전원에게 복무조례(안) 설명
03.21.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안 가결
03.30.	경상북도의회 제291차 임시회 원안 가결
04.06.	경북교육청 조례공포·시행

“여론몰이”로 공무원을 벼랑 끝으로

정부의 속내

- ▶ 현재: 지방선거 후 연금논의 본격화, 끊임없는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
- ▶ 내년: 재정 재계산후 법 개정, 대대적인 개혁 작업 추진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만들어 버린 정부

- ▶ 매일 평균 3~4건 중앙방송과 중앙지에 도배
- ▶ 공무원이 국민세금 강탈(형세로 보진)
- ▶ 공무원과 군인은 년 돈의 3배 이상 가져간다.
- ▶ 공격연금을 하루빨리 수습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연금 때문에 부담할 미래의 부모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야 하나.
(정부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금지! 겸직금지!
과실로 인한 2중 처벌! (형사법, 행정법)

- ▶ 596조항을 모두 세금으로 갈아야 하는 나랏빚처럼 거장으로 꾸이고, (공무원과 정부의 남부역은 배고, 모든 공무원이 일시에 그만두고 기존수급자와 20년간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봉에 올려 선동)
- ▶ 정부의 부당사용금 6조 9천억 (현재까지 20조)은 왜 안 갚고 있다. (값을 어떡도 없겠지안.)
- ▶ 공무원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야 적성이

경안일보

2017년 05월 17일 수요일 003면 종합 15.4 x 14.4 cm

경북도교육청공노조 제6대 출범

“새로운 노동문화 선도, 책임과 의무 다할 것”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 제6대 출범식을 지난 12일 경북교육청 용비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철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 전국광역연맹노조 김현진 위원

장, 전국시군구노조 석원정 위원장, KT노조 대구경북본부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공공기관 10여 개 단위노조 위원장, 전국의 공무원단체 단위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 및 도의원 등 50여 명의 내외귀빈과 300여 명의

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악교육원 '타모리' 팀의 난타 축하 공연으로 출범식의 문을 열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처음 시작할 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국민에게 참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국민들에게 제 바그릇 행기 위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는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로 거듭날 것이며 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6대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 2년간 조합원들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종기 기자 ga7799@gaiboo.com

교육청노조, 새정부에 바란다.



변화하는 정부 희망찬 교육행정

자명종

유은혜의원, 송기석의원 간담회
- 학교조직 법제화 추진관련 검토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2017년 2월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유은혜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교육청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동맹공무원노동조합 3개 노조가 함께 「학교조직 법제화 법안」 추진경과와 행정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부교장제 반대」 의견을 세차 강조하였다.
이때, 유은혜 의원은 “3월~4월경에 3개 노조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상시 협의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전교육노조 한성호위원장, 전북교육노조 김인석사무총장장 유은혜의원, 이...

지방교육지원국장 간담회 개선, 수당 개선, 노사 상생협력 강화 요구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1월 25일(수) 교육부 지방교육...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의 현안문제인 △인사제도 분야 △수당분야 △노사 상생협력 분야에 관련해서, ...에 관한 규정 일부개... 2017년 1월 3일 ...

사람들 [이런일] 노조 맡겨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26일 가칭 형편이 어려운 도내 소년소녀가장 50여 명에게 전달해 달라며 노조 총금 1,000kg 쌀 기증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26일 가칭 형편이 어려운 도내 소년소녀가장 50여 명에게 전달해 달라며 노조 총금 1,000kg 쌀 기증...
설훈 국회의원 간담회 가져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반대의견 전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설훈 의원은 “학교 및 행정기관의 책임을 더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마련했지만 교육청노조의 의견을 듣고 보니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공정행동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헌정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전인식 사무총장, 설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노사상생 新노동문화 선도 ‘든든한 울타리’ 될 것”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제6대 출범식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최근 제6대 출범식(사진)을 열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처음 시작할 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국민에게 참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국민들에게 제 바그릇 행기 위한 모습이 안타깝다”라며 “앞으로는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로 거듭날 것이며 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신승대기자 <shinyd@jeonmae.com>



전국 최대 공무원 단위노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제6대 출범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제6대 출범식을 2017.5.12(금)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 전국광역연맹노조 김현진 위원장, 전국시군구노조 석현정위원장, KT노조 대구경북본부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공공기관 10여개 단위노조 위원장, 전국의 공무원단체 단위노조 위원장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교육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위원장 및 도의원 등 50여명의 내외 귀빈과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악교육원 ‘타모리’ 팀의 난타 축하 공연으로 출범식의 문을 열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처음 시작할 때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국민에게 참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국민들에게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는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로 거듭날 것이며 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6대 경북교육노조 집행부는 2019년 4월까지 2년간 임기동안 조합원 권익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12회 경북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리에 마쳐...

경북교육노조가 후원하고 경북교육청이 주최한 제12회 경북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2017.5.20.(토)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조합원 약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이철우 국회의원,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경북학교운영협의회장, 23개군 교육장, 행정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7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체육대회는 총 24팀으로 편성되어 4종목(웃놀이, 400m계주, 단체줄넘기, 단체줄다리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대회 내내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참가 지역별로 풍물놀이, 전통의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응원이 더해져 한층 더 즐거움을 주었다.

경기결과 종합우승은 의성, 2위 예천, 3위는 영주교육지원청이 하였으며, 응원상에는 1위 예천, 2위 경주 3위 성주교육지원청이 받았다.

경기에 앞서 이영우 교육감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열심히 뛰고 서로 응원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이어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오늘 하루 업무에 쌓인 스트레스를 다 날리도록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차별의 대명사인 학교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지난 4월 복무조례개정 통과에 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님, 도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다”고 하였다.

한편 경북교육노조는 연말에 개최 될 『소년소녀 가정돕기』행사를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생맥주 판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지부간의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



2017년도 노사 합동 연수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경북교육노조 임원 및 본청 지부장을 비롯한 23개 시군지부장과 경북교육청 과장이상 간부, 23개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노사합동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노사가 함께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현안을 공유하면서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와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건전 노사문화 구축 우수 공무원 10명에 대해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에게 차별의 대명사처럼 여겨오던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변경 등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으로 복지향상을 이루어 낸 것은 노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상생한 결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노력을 계속하자.”고 하였다.

이영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상호 신뢰와 의사소통에 있으며 앞으로 대화와 존중을 통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6대 임원 당선자, 이영우 교육감과 상견례 가져...

경북교육노조는 2017.3.22(수) 이영우 교육감과 제6대 임원 당선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북교육노조 제6대 임원은 지난 3월15일 포항지부를 비롯한 24개 시군 지부조합원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김종기 위원장,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당선자와 3월18일 제3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최정연, 신영찬, 김태균, 김진수 부위원장 당선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영우 교육감은 “제6대 경북교육노조 임원으로 당선된 분들 모두 축하 한다.”면서 “모든 노조활동이 투쟁이 아닌 상생과 소통을 통한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북교육노조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교육감과의 상견례에 앞서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운영태기획조정관, 조기정감사관 등 본청 과장들과의 이루어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겸한 상견례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제291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이 원안 통과된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행부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상생하면서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에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제6대 임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경북교육노조는 지금까지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노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제68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7.4.7(금)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김종기 위원장 및 노조 상임위원 2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차 정기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해 지부장들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조합원들에게 노조 활동 결과가 충분히 전달 될수 있도록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원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인사말을 대신 하였다.

이번 정기상임위원회는 △성과상여금에 관한 건, △제6대 경북교육노조 출범식에 관한 건, △한마음 체육대회 기념품에 관한 건 등에 관하여 깊이 있게 논의 하였다.





제3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종기,이하경북교육노조)는 2017.3.18.(토)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24개 시·군지부 대의원 약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3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기초에 모두가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동지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대의원은 인체에서 대동맥에 해당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인체의 머리인 집행부에 많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은 같은 직장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당선될 노조 임원들과 집행부를 구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주요활동 보고와 2016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안건 심의에서는 △2016년도 경북교육노조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연금기금, 적립금) 결산(안)과 제6대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출(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제6대 임원 선거에서 부위원장으로 최정연, 신영찬, 김태균, 김진수 후보(득표순)가 회계감사위원장으로 강종현 후보가 선출되었다.

한편, 2017.3.15.(수)에는 포항지부를 비롯한 24개 시군지부 조합원 4,173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로 실시한 제6대 위원장 선거에서 2,254(54.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자 94.4%의 찬성으로 위원장 김종기 후보, 수석부위원장 서종철 후보, 사무총장 정원상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새로 구성되는 6대 경북교육노조 집행부는 4대, 5대에 이어 조합원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 차별없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7.2.17.(금)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 이하 교육위원회)소속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경북교육노조와 교육위원회가 소통을 통하여 경북교육발전과 지방공무원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이루어졌다.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출신 지역 지부장들과 함께 격식없는 대화를 통해 경북교육발전을 함께 논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역에서도 자주 만나 소통을 통한 교육발전을 함께 하자”고 하였다.

이에 김종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 지역현장에서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기회가 되는대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 및 김종기 위원장의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경북교육노조 현안사안을 포함한 경북교육노조 소개, 참석지부장들과 도의원들과의 대담순으로 이루어 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 곽경호의원(칠곡), 김희수의원(포항), 박용선의원(포항), 김지식의원(구미)이 참석하였고, 노조측에서는 김종기 위원장, 김태균 부위원장, 이연희 상주지부장, 박영락 경산지부장, 김석제 문경지부장, 전종필 구미지부장, 정원상 사무총장, 서종철 정책교섭국장등이 참석하였으며 김홍구 수석전문위원, 윤희란 전문위원과 최정연 부위원장이 배석하였다.

2017년 상반기 조합원 노동교육 실시

경북교육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상반기 노동교육을 1.16.(월) 포항권역, 1.18(수)구미권역, 1.20(금)안동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2013년 단체협약에 따라 동·하절기 방학 중에 개최하여 5회째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3개권역(포항권, 구미권, 경주권)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2,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다.

교육에 앞서 격려차 참석한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노사교육을 통해 노사관계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노사가 상생하여 직원 복지와 권익개선을 위해 뒷받침 하겠다.”고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노동교육을 통해서 노조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짚어보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노동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많이 참석해준 여러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였다.

이번 노동교육에서는 김종기 위원장의 경북교육노조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과 유한양행 박광진 위원장의 “노사갈등 사례 및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강의순으로 진행되었다.

동아리 소개

» 산악회동호회 / 테니스동호회 / 음악동호회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교육행정

자명종

경상북도교육청 등산 동호인회(요산회)

우리 요산회는 국내 명산 등반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쁨으로써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 확산에 최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연락처 : 경북교육청 서우찬 적정규모학교교육성추진단
(054-805-3953)



매일 축제속에서 사는 테니스동호회

경북교육청 테니스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2007년 1월에 창단되어 현재 김준호(중등과장) 회장님을 중심으로 42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활기찬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날씨가 허락하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며, 월1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제5회 교육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테니스 대회에서는, 우리 동아리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청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테니스는 하루의 피로도 풀 수 있고, 건강도 챙기고, 직장 간의 우의도 다지고 일석삼조(一石三鳥)의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건강한 이에게는 매일매일이 축제다."라는 터키 속담이 있습니다. 검무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매일매일 건강한 맘을 흘리실 분!

우리 테니스 동아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테니스의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락처 : 경북교육청 정책과 노현석 주무관 (054-805-3275)



음악동호회 - 백년대계

- 동호회명 : 백년대계(음악동호회)
- 설립일 : 2004년도
- 목적
 - 음악을 통한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가족같은 직장분위기 조성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개인 업무능력 배양
 - 대내외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음악공연 등을 통한 경북교육 홍보 및 봉사
- 회원 :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등 본청 및 지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카페가입하기 : <http://cafe.daum.net/Bigplan>(백년대계)
- 주요활동 :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 ▲ 연락처 : 경북교육청 시설과
김성은 주무관 (054-805-3924)



현장중심 노조!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형성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 종 기

1) 1. 공무원 노조의 형성

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형성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직사회에도 드디어 본격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앞서 1999년 1월부터 공직사회에 처음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탄생하였으나, 그 활동은 조직의 결성 단위가 ‘기관’에 한정되어 있었고, 주된 역할도 ‘기관’에서 발생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처리에 머무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2006년부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단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

※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노동운동을 견인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는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민간부문 노조가 ‘조직노동의 황혼기’에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노조가 주도적인 부문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특칭하기 위해 ‘구노동조합주의(old unionism)’와 ‘신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로 구분함

나.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란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규칙의 제정(노동관계법), 이해관계의 조정(조정 및 중재), 노사관계 행위에 대한 감시(관리 및 감독) 등의 역할을 하는 국가 역시 노사관계의 중요한 주체이다.

공무원 노사관계는 근로자로서의 공무원 및 그 대표기구인 공무원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정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정부가 공무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사용자이자 교섭 당사자이다. 행정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과 국민의 이해(interests)를 대변하는 국회는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와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갖는 계약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다. 공무원노조의 형성 과정

공무원노조의 결성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연합체가 결성되고 그 연합체로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공무원노조의 설립 과정은 크게 세 단계 직장협의회 설립 시작(1999년), 개별 직장협의회 간 연합모임 결성(2000-01년), 2개의 공무원노동조합(법외노조) 결성(2002년 3월)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1999.1.1 이후)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된 이후 산업자원부(1.12)와 농림부(1.20)를 시발로 직장협의회 설립되었고, 설립된 직장협의회에서는 가입대상 공무원의 참여도가 높아, 부산시 연제구의 경우 93%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협의회의 경우에도 평균 60~70%를 상회하는 가입률을 보였다. 직장협의회 조직률은 각 기관별로 차이를 보여, 직장협의회법이 발효된 이후 초기에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빠른 속도로 조직되어 2000년 말 절반 이상(51.7%)이 조직되었고 이 조직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2005.3 기준 65.1%) 반면에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단위에서는 2000년 말 조직률이 10.5%였으나 이후 해마다 약 10%씩 증가하여 2003년3월 기준 37%에 이른 후, 조직률이 두 배 이상 급증하여 2004년2월 기준 83.4%를 기록(2005.3 기준 82.3%)하였다.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간담회 및 발전연구회(전공연)

전국의 각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들은 직장협의회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가진 후 1999.6.26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결성하였고, 간담회 초기에는 전국의 직장협의회 대표가 모여 서로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공무원 사회 내 개혁내용에 대한 토론 및 전국단위 연합체 결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 가기 시작하였다. 2000.2.19 간담회에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처 등의 기구와 내부 규정을 지닌 조직으로서 실체를 갖춘 전공연 결성에 합의하였다. 전공연은 비록 현행법상 전국 조직을 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발전연구회'라는 형태로 조직되긴 했지만, 기관 단위 개별 직장협의회들은 사실상 이를 통해 전국적인 준(準)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이후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결성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0.3.18 전공연 주최로 열린 제8차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 허용'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3) 전공연에서 전공련의 분리

2001.2.3 임시총회에서 '전공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을 결성하려는 집단들이 회의를 주도하고 분리를 결의하였다. 전공련은 임시총회에서 단체의 명칭 변경 외에 12명의 공동대표 체제를 단일대표체제로 변경. 이외에도 '노동권 회복을 통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 및 역량확대', '협의회간 연락, 정보교환' 등의 항목을 규정에 추가, 형식적으로 전국단위의 공무원노조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시기 전공련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던 시민·사회단체들, 민변, 전교조, 참여연대 및 경실련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였다.

4) 전공연 잔류 집단

2001.2.3 임시총회에서 '전공련'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연' 잔류를 선언한 직장협의회들은 3월 17일 제12차 간담회를 통해 전공련 불참 및 개정규약의 무효를 결의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활동 전개하였다. 이들 전공연 잔류집단은, 한편으로 전공련의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한 일관된 활동을 지켜보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방침·입장의 변경에 유의하다가, 2001.8.4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공련은 2002.3.24 법외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결성하였으며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전공련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정부의 전공련 탄압 철회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01.10.14 전공련은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2002.3.24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2002.3.24 공권력이 투입되어 전공련 대의원, 지역 대표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연행되는 충격을 겪으면서, 고려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출범시켰다. 전공노는 2002년 11월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 2003년 10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공무원 노동3권과 대정부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 2,500명의 징계자와 500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으며, 징계를 둘러싸고 행자부와 시군구 간의 갈등과 함께 기관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졌다.

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련) (2002년 3월 이후)

전공연 잔류 집단은 2001년 8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공노준)를 결성하여 한국노총을 통해서 노사정위원회에 참관 단체로 참가하여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논의 수준에서 공무원노조 인정을 요구하였고, 공노준은 2002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002.3.16 공무원과 한국노총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련) 출범식을 가지고 전공노와 대공련에 가맹하지 않았던 직장협의회 중 일부가 2004.4.21 전국국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을 결성하고, 대공련과 전목련, 그리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서공노연맹; 2002.12.3 결성)은 2004.7.2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FGE)을 결성, 2006.9.4 합법노조로 전환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참고문헌 : 송태수 : 공무원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노동교육원, 2007

연맹공동추진사항

1. 학교조직법제화

◎ 현황

- ▶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원은 늘고 있고 일반직은 줄고 있음.
- ▶ 각종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고 새로운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행정직은 계속하여 정원이 줄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수당에서도 교원과 상반된 처우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상실됨.
- ▶ 초·중등학교 행정실 등 행정조직은 학교의 행정업무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체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 ▶ 대학교와 달리 초·중등학교는 학교조직(행정실 등) 설치가 법제화되지 않아 학교장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하면서 교원과 갈등을 초래하여 업무향상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 방과 후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교원의 우대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나 행정업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인력확충보다는 학생지원 활동에 더욱 가중된 업무를 요구하고 있음.

◎ 도입 필요성

-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인사에 관하여서만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의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 운영, 직무 범위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음.
- ▶ 학교조직(행정실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
- ▶ 또한 단위학교의 행정조직과 행정실의 설치근거 및 구체적인 분장사무의 규정 미비로 인하여, 교원과의 역할 분담이 애매한 관계로 교원과 행정직원간의 갈등이 빈번히 빚어지고 있는 실정
-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 행정실 등의 설치를 법제화하고 행정실 근무자의 직급, 배치기준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선진화된 학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우리의 요구

- ▶ 학교의 교무조직과 행정조직을 고등교육법과 같이 법제화하여 학교운영의 통일성과 안전성, 교육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 교육부가 학교조직(행정실 등) 설치를 법제화하여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 관련법령 개정요구(안)
 - 2016. 7.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유은혜 의원 외 27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9(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

◎ 현황

- ▶ 현행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교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교원위원으로 당선되어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지방공무원의 경우 교원위원 선거만을 위한 형식적인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며, '교원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해 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임.
- ▶ 교육부가 즉각 나서서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함.

◎ 우리의 요구

- ▶ 관련법령 개정요구(안)
 - 2016.8.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안민석 의원 등 17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생 략)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교직원----- ----- ③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재개정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른 업무량 증가(학교회계직노무관리업무, 방과후학교운영지원업무, 행정전산화에 따른 대민업무 등) 등 역량과 책임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처우개선 및 사기양양은 이루어지지 않음.
- ▶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연구업무 수당,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교직수당 등 교육(전문)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여러 명목으로 존재하나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전무함.
- ▶ 정부조직 측면의 특수행정분야의 "특수직무수당"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은 월정액으로 수령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지방공무원 은 수당수령액은 전무함.
- ▶ 교육부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교원)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이원적 조직으로서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교원의 처우개선은 점차 확대, 교육부의 교원업무경감 정책으로 교원의 업무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량의 과도하게 이관되는 추세이며 또한 관련수당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는 반드시 개선 반영되어야 함.

◎ 경과사항

-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용 중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현안사업인 "특수직무수당" 신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2016.12.28. 저녁에 기획재정부가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 됨.

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월 30,000원 이하

- ▶ 2016.12.30.(금)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와 향의방문
- 오재형위원장, 김인석사무총장, 공노총 이창희사무총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행정자치부 인사제도와 과장]

- ▶ 2017.1.2.(월)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향의방문, 정책보좌관실 김문구보좌관 방문
-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경북교육노조 김종기위원장, 오재형위원장, 김인석사무총장
- 국립학교와 형평성문제를 야기하면서 불가방침



[기재부 예산기준과 과장]



[기재부 김문구 정책보좌관]

- ▶ 2017.1.2.(월) : 행정자치부 재향의방문

◎ 향후방안

- ▶ 교육행정기관(공립 유·초·중·고·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가칭 "교육행정활동비") 신설 요구
- ▶ 신규조문대조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현 행	개 정 (안)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가.~아.(생략)	특수행정분야 11. 특수직무수당 자. (가칭 "교육행정활동비" 조항신설) 1) 5급이하 지방공무원 : 월 70,000원 지방교육행정기관(유·초·중·고 및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우리도 예술가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 박기서 주무관



- 작품명 : 양광마을
- 작품설명 : 지금의 경상북도교육청 자리인 양광마을은 검무산 동쪽에 있었다. 근처 마을보다 해 뜨는것을 먼저 볼 수 있고 하루종일 햇빛이 잘 든다고 하여 『양광』이라 하였다.
- 작품명 : 가을걷이
- 작품설명 : 어느 산골마을에 가을걷이를 하고 있는 아낙네의 일상
- 작품명 : 물레
- 작품설명 : "물레라 바퀴는 실실이 시르렁
어제나 오늘도 흥겨이 돌아도
사람의 한 생(生)은 시름에 돈 다오"(김억 詩/김순애 곡).



현관앞에 놓인 선물

군위지부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검은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터질 듯 놓여 있었다.

분명 나를 아는 분이 두고 간 것 일텐데, 선뜻 봉지에 손이 가지 않았다.

우리 것임에 분명 하지만 마을회관에 농약사건 소식을 접하고부터는 집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그냥 밖에 두었다.

한참을 지나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슬쩍 봉지를 열어보니 먹음직하고 큼직한 복숭아였다.

순간 나도 몰래 군침이 돌았다.

‘그냥 들고 들어가서 먹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복숭아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누가 준건지 모르는 것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엄포가 있었기에 특히 먹거리는 어린아이들이 있기에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다.

‘밖에 그대로 있으면 주신분이 맘 상하지 않을까?’

‘아래층 할머니께서 두고 가셨나?’ 온갖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도 대문을 열면서 ‘아빠 문 앞에 끼만 봉지 뭐예요?’ 라고 묻고

와이프도 역시 퇴근하면서 물었다.

“나도 몰라, 누가 주신건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뒀어”

와이프는 일단 들고 들어 와서는 여기 저기 전화를 돌려 확인을 해 보았다. 모든 지인분들께 연락을 해 보았지만

아니라고만 하고 그냥 먹으면 되지 라고만 하셨다.

3일째 되는날 봉지속 복숭아가 썩기 시작했는지 물과 함께 초파리가 날아 다니기 시작했다. 선물의 주인은 찾지 못 하고

탐스럽고 복스러운 복숭아는 우리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몸받쳐 헌신 할 것을 명받고 왔을 터 인데 그냥 그렇게 쓰레기 통으로

들어 가고 말았다. 아까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 주신분을 모른다.

분명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을텐데, 안타깝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의심해야하고

두려워 해야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다. 선물 받을 때 기쁨보다 나눌 때

기쁨은 몇배일텐데 그분의 정성에 충실하지 못한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선물을 드릴 때 받는이를 만나지 못했을 때 쪽지한장 남겨두고

가면 주는이도 받는이도 서로 행복 하지 않을까요?

감사인사도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예천지부장 권기일

조합원동지 여러분!! 저는 예천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랫동안 예천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있는 권기일입니다. 글을 올릴 자격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 이렇게라도 저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언제 봄이 왔는가 싶었는데 벌써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네요.

젊음은 주어진다지만 늙음은 만들어 간다고들 하지요.

행복한 미래와 즐거운 직장생활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들이라면 즐거운 인생으로 잘 가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직장생활도 언 24년이라는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누구나가 겪겠지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는 모두에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올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같은 스트레스라도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어가느냐는 저마다 다르겠지요.

저는 스트레스 관리 및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고자 주말이면 직원 몇몇과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등산 동아리를 통해 직원들과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등산 외에도 건강관리를 위해 20년 이상 테니스도 해오고 있습니다.

등산과 테니스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평소에 늘 접해보고 싶었던 색소폰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배우기 시작한 색소폰 연주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초보자의 수준이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요양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위문 공연을 통한 재능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에 출전하여 큰 호응도 받았으며, 각종 축제 및 음악회에 출연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합니다.

색소폰이든 등산이든 테니스든 다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히 문을 두드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	
	11		12				
13						14	15
★		16			17		
18					19		

※ 아래의 글자로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원	루	후	도	다	닥	성	용
양	심	목	시	자	스	보	곡
대	무	다	사	비	반	폐	랑
리	도	각	미	주	래	가	다
유	짜	기	전	회	놀	수	목

가로 문제

1. 다양한 특성
3. 다발로 묶어서 마당을 쓰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풀
5. 높은 곳에 디디고 오르도록 만든 기구
7.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
9. 방부, 소독에 사용. 낙동강이 오염되기도
10.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는 첫날밤 장면에서 부르는 판소리
11. 뒤에서 도와주기 위하여 조직한 회
13. 위엄있고 활기 있게 걷는 걸음
14. 초밥
16. 고니를 조각하다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집오리가 되었다
18.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19.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세로 문제

1. 여러가지 쓰임새
2. 일을 이룸
3.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4. 혈액감식에 사용하는 용액
6.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예사롭게 자주 있거나 하는 일
8.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9.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 돋친 천마
12. 선행을 권장하여 지은 노래
13. 물건을 싸는 작은 보
15. 무척이나 배추의 잎을 말린 것
16. 본문 아래쪽에 밝히는 풀이나 참고 글
17. 태양에서 다섯째로 가까운 행성

●●● **응모방법**

정답을 보내오신 조합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하실 때에는 A4용지에 날말맞추기와 소속기관 주소, 우편번호, 성명, 소속,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응모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 ▶ 보내실 곳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36759)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송부(Fax.054-805-3989)

※ 당첨자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www.gbe.or.kr)공지사항란에 알림

조합원 투고 안내

조합원 소식, 기행문, 시, 수필, 공트, 만화 등 소재에 구별없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보내실 곳 : 화랑이(아이디03ina) 또는 메일(03ina@gyo6.net)
- ▶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 (054-805-3981)

위장에 좋은차 추천 5가지

●매실차

소화를 도와주고 위와 장을 보호해주는 차로 매실차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실 특유의 신맛이 위를 자극해 소화액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매실차를 한 잔 마셔주면 소화를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매실차를 자주 마셔주면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이 쓰린 증상을 개선해주고 손상이 많이 간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주 마셔주면 아주 좋습니다.



●유자차

유자차는 우리가 겨울에 가장 자주 마시는 차인데요. 유자차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위장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위장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속이 거북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나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유자차 한잔을 마셔주게 되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면서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니 체하는 느낌이 든다면 유자차를 마셔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진피차

진피차란 귤의 껍질을 벗겨 햇빛에 잘 말린 후 그것을 따뜻한 물에 끓인 차를 얘기하는데요. 귤껍질 속에는 헤스페레딘이라는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소화액을 분비하는걸 촉진시켜주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입맛이 없을 때도 진피차를 마셔주면 진피차 특유의 단맛과 신맛이 입맛을 돋우어주어 여름에 더위를 먹었거나 몸살로 인해 입맛이 없다면 진피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생강차

생강차도 앞서 말한 것처럼 생강차 특유의 매운맛이 위를 자극해 소화액을 분비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또한 체하거나 배탈이 나면 구토를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생강차를 마셔주면 속을 달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장운동을 도와주어 소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를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살균작용을 도와주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대추차


대추차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위장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소화가 평소엔 힘들시거나 혹은 평소에 자주 설사나 변비에 걸리시는 분이라면 대추차를 자주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화불량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신다면 소화기관과 관련한 질병들을 완화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입맛을 돋우어 준다 고도 하네요.



오늘은 위장에 좋은 차를 알려드렸는데요. 요즘은 바쁜 일상 속에서 밥을 일일이 차려먹기가 힘들어 배달음식을 먹거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주로 밀가루 음식들이 많고 방부제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찌게도 하지만 위장에도 많은 무리를 주는데요.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니 평소에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전화 053)805-3981 팩스 053)805-3989 www.gbe.or.kr